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담**

전강 스님(3)

한암, '본래무일물'이라 해도 인가를 못  
하겠다. 어떻게 인가를 받겠는가?  
전강. (묵묵히 손을 모아 세 번 예를 올리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의 나  
이, 26세가 되던 해 금강산 지장암으  
로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을 찾  
아가 참문했다.  
전강 스님의 개요를 소문으로 듣고  
있던 한암 스님이 물었다.  
"육조 스님께서 본래무일물(本來無  
一物: 진여당처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이라 일렀지만, 나는 본래무일물  
이라 해도 인가를 못하겠다. 그러나  
자네는 어떻게 하여 인가를 받겠  
는가?"

전강 스님은 묵묵히 손을 모아 세  
번 예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  
다. 이에 한암 스님은 말없이 스님을  
공경하였다. 입을 열면 그르치고(開口  
即錯) 생각

**죽은 말 대신 '살아있는 몸짓' 사용**

을 일으키면 '죽은 말' 대신 '살아있는 몸짓' 사용  
어긋나고 마는 (動念 卽  
乖) 위기일

발의 순간에 전강 스님은 '죽은 말(死  
句)'이 아닌 '살아 있는 말(活句)'인  
묘용(妙用)으로 죽답을 하고 있다. 이  
러한 생생한 몸짓 언어에 한암 스님  
역시 말없이 수긍함으로써 말질이 끊  
어진 무언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 문답에 나오는 '본래무일물' 이  
란 말은 육조혜능 선사의 계승에서  
비롯했다.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 보리에 본  
래 나무가 없고)  
명경역비래(明鏡亦非臺: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 어느 곳에  
리끌 일어나라)

이 계승은 원래 신수 스님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수시  
로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

라"는 계승을 극적으로 뒤집어 오조  
홍인 스님의 인가를 받은 노래이다.  
육조 스님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부족  
함이 없고 청정한 본래면목(本來面目:  
성품) 즉, '한 물건도 없는' 공성(空性)  
을 요달하면 갈래나 빗자루를 들고 쓸  
고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본래면목을 묻는 질  
문에 전강 스님은 말을 빌리지 않고  
온몸으로 그 뜻을 드러내었다. 그렇다  
면, 합장하고 삼배하는 행위가 그것이  
란 말인가?

<조망집>에 나오는 선종 선사들의 다  
음 문답을 참고해 보자.

"옛 사람이 말하길, '밤마다 부처  
(本래면목, 불성)를 품고 자고 아침마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문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  
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부처를 어  
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  
(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  
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  
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  
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  
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음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  
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사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  
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  
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문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  
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부처를 어  
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  
(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  
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  
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  
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  
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음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  
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사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  
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  
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문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  
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부처를 어  
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  
(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  
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  
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  
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  
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음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  
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사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  
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  
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문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  
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부처를 어  
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  
(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  
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  
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  
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  
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음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  
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사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  
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  
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문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  
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부처를 어  
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  
(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  
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  
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  
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  
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음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  
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사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  
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  
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문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  
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부처를 어  
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  
(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  
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  
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  
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  
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음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  
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사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  
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  
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문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  
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부처를 어  
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  
(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  
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  
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  
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  
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음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  
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사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  
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  
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다 부처와 함께 일어  
난다"고 했  
는데, 어떤  
것이 부처  
일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  
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 “일상 속에서 육바라밀 실천해야”

## 2년만에 막 내린 중화사 옥수동포교당 '육조단경' 강의



지난 2년간 <육조단경> 강의를 진행한 용하 스님(왼쪽)과 <단경>의 오묘한 진리에 푹 빠진 신도들.

“성품 가운데서 싹튼 견해인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나면 곧 마왕이 와서 집  
에 살고,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마군(魔軍)이 변화하여 부처가 되나니,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10월 13일, 서울 중화사(주지 용하) 옥수  
동포교당에서는 2년여 간 진행된 용하 스님  
(前 조계종 포교국장)의 <육조단경> 강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육조혜능(六  
祖慧能, 638~713) 스님이 입적 직전에 남긴  
“삼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見眞佛解脫  
頌)”를 비롯한 유언에 담긴 심지법문(心地  
法門)은 마치 마음밭을 적시는 듯 했다.

용하 스님은 입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본래 마음자리를 곧바로 일러주시는 육조 스  
님의 자비심을 감회하여 목소리로 풀이해  
준다. 단경의 한문 원전을 한 문단씩 따라  
읽게 하고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가며 번역  
한 뒤, 일상속의 6바라밀행과 연결시켜 법  
문하니 어려운 선어록이 쉽게 다가온다. 실  
제로 법문을 듣는 신도들은 몇몇 거사님과  
젊은 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년이상  
의 불자들에게 오려 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단경>이 송대에 남종선(南宗禪:  
이유도 변방 오랑캐 출신인 나무꾼 노랭자  
의 비약적인 견성성불(見性成佛) 이야기  
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

이다. 일상 속의 본별심과 망념을 끊임없이 내  
려놓게 함으로써,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  
는 자성(自性)을 곧바로 깨닫게 하는 힘은 <  
단경>의 간결한 법문에 녹아있는 것이다.

<단경>의 핵심적인 선사상은 단박에 성  
품을 깨닫는 ‘돈오(頓悟) 견성’, 진여자성을  
자각해 마음에 번뇌·망념이 없는 ‘무념(無  
念)’, 늘 집착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보살행을 실천하는 ‘무주(無住)’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인 반야사  
상과 불성사상을 선의 실천으로 통합한 새  
로운 생활선인 것이다.

그렇다면 <단경>이 강조하는 견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경> ‘돈집품’에 따르면  
이런 설명이 보인다.

“한순간도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모든 상  
황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는 최상의  
자유라는 아무 행안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  
여 지속적 화연인 ‘유희삼매(遊戲三昧)’를 누  
린다. 이것이 바로 견성의 의미이다.”

본래의 자성을 보는(返照) 견성은 가고 떠  
나고 있고 없고 간에 항상 곧은 마음을 쓰는  
‘일행삼매(一行三昧)’로 이어져야 한다. 육  
조 스님도 “늘 ‘곧은 마음(直心)’으로 행하  
여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용하 스님이 강조해 온 법문도 이러한 일  
행삼매를 기초로 하고 있다. 경전과 어록을  
통해 배운 그대로 생활 속에서 무념(無念)을  
실천토록 한 것이다. 육바라밀의 보살도 수  
행과 공(空)사상을 실천하는 선종 가운데 어  
긋나지 않게, 신도회(회장 명예)가 화합해서  
절 설립을 운영위원회(위원장 덕신행) 체제

로 꾸러온 것도 자랑거리다. 게다가 매달 중  
국 사천성 홍류엔에 사는 장족 티베트학교  
에 장학금을 매달 지급하는 일은 단경이 강  
조한 무주상(無住相)보시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용하 스님은 “18년 전 포교당이 생길  
때만 해도 기복신행에 몰두하던 신도들이  
기초교리와 경전공부로 안목을 높이고 기  
도정진과 보살행으로 원력을 쌓아 온 것이  
작은 ‘나눔의 공동체’를 일군 원동력이다”  
고 말했다.

육조 스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생각생각  
이 어리석지 않아,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것이 곧 반야행(般若行)이다”고 했으니,  
삶을 여인 수행이 어디에 따로 있겠는가. 생  
활 속에서 반야행을 실천하는 중화사 불자  
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다. 용하 스님은  
앞으로 규봉종필 선사들의 <원인론(原人論)>  
을 강의할 계획이다. (02)2299-8018

김성우 객원기자

### ‘달마혈맥론’ 강의 개설

법천사 일수 스님, 26일부터



“근기에 응  
해 중생을 제  
접하며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감박여 수족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신령스  
린 깨달음의 성품(靈覺之性)이  
니라.”(달마혈맥론)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  
(菩提達磨)의 가르침을 문답형식  
으로 기록한 <달마혈맥론(達磨血  
脈論)>에 대한 강의와 참선습수  
가 열린다. 일수 스님(법천사 운  
문선원장·사진)은 제방선원에서  
20여 년간 정진한 공부경험을 바  
탕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  
까지 매주 금~일요일 오후 1시  
‘혈맥론’ 강좌(12강)를 개설한다.

백양사 운문선원장을 역임한  
일수 스님은 “심정, 해안, 법전,  
월하, 월산, 서암, 서용, 청화 큰스  
님 회상에서 정진한 경험을 달마  
어록을 통해 나누고자 강좌를 열  
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祖師西來意)”을  
해제기간 동안 함께 공부하고자  
한다”면서, 간화선을 참구하는  
재가 수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을 당부했다.

일수 스님은 ‘혈맥론’에 이어  
해제절마다 ‘관심론’, ‘이입사행  
론’도 강의할 예정이다. 매월 첫  
째, 셋째 주일 참여정진도 계속  
진행한다. (02)745-6939

**수영 게시판**

- **간화선 향상과장-조계종**은 10월 29일~11월 11일 중앙승가대 보교사교육원에서 간화선 실천수행 향상과정을 연다. (02)2011-1807
- **고연가 위빠사나 집중수행-한국어**는 사나운 영의원회(DHAMMAKOREA)는 10월 31일~11월 11일 문경 김용초등학교에서 고연가 명상 10일 코스를 연다. (018)335-9882
- **유미경 강역-안산 정토원** 원장 정복 스님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7~9시 부산불교교과대학에서 유미경을 강의한다. (051)711-07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냈는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마스터 김희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팩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보살의 삶을 나의 삶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어린 이 집 노인복지관 **1000일 원력성취 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한방울의 작은물이 끓는 바다를 이루고  
하나 하나의 아주 미약한 눈발이 만년설상을  
형성하듯이 저희 의지나 실천이 보잘 것 없으나  
마침내는 보살의 삶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찬 권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심하고 출발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느 누구도 이 원력과 기도에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결심히 알기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 할 것을  
바랍니다.

불기 2551(2007)년 10월  
회주 벽암 주지 원명  
신도회 합장

**기도**  
매일 새벽 5시  
세백송송-칠정예-경전독경(10분)-경근(1000번)-천일발원문(합송)-반야심경(중단)-무상계(영단)

**동참금**  
각 개인이 하루에 내는 원력 성취금(동참금)을 정한, 발달 안에 천일 원력 성취문(기록카드)과  
성취금함을 배치하여 본인이 작성 관리보관하며, 원력 성취금은 성취함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된.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성취금기록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온라인 통장이나  
직접 보시도록 함

입 재 : 2551(2007)년 10월 24일(음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회 향 : 2554(2010)년 7월 19일(음 6월 8일) 오전 10시  
합동법회 : 매월 호법법회, 첫째 일요법회, 100일 마다 특별 회향법회

개인기도시 - 경전독송(5분정도), 경근(석가모니불 1000번), 발원문, 원력 성취금  
특별실천 - 매일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발원문을 클릭하면 자동 환신했어 매일 매일 동참자가 표기됨  
\* 기도준비팀 회장단, 지도위원, 지역법회, 포럼, 수다라 사무처, 만다라, 홀무스, 헌팅이 일주일간 담임(종, 다기를, 책 등 준비)

불교신문 **금강상사** 문의 : 02)898-8200 www.sejon.org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판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판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령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벌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한국불교원광종**

종 정 능 허 대종사  
총무원장 법륜

종 의 회 의 장 선진	교 육 원 장 법민
규 정 원 장 법성	포 교 원 장 경산
문 화 원 장 법원	
총 무 부 장 진공	기 획 부 장 도현
재 무 부 장 고담	사 회 부 장 도각
문 화 부 장 도성	포 교 국 장 혜암
문 화 국 장 혜지	
종 정 예 경 실 장 도연	강원도총무원장 진각
경기남부총무원장 혜안	경주총무원장 청암
경기북부총무원장 진광	전남총무원장 경진
충남총무원장 보선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 :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1-3번지 전화02)802-1740